

배포 일시	2022. 11. 9.(수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박희민 (044-201-4623)
		담당자	사무관 현기창 (044-201-462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사조위 안전권고에 따른 선로 분기부 일제점검 실시 - 원희룡 장관, “어떠한 안전 사각지대도 없도록” 강력 주문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6일(일)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사조위)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 - 사조위 초동조사 결과 영등포역 선로 분기부의 일부 레일이 이미 파손된 상태에서 열차가 진입하여 탈선하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.
  - 선로 분기부는 구조적 특성상\* 일반 레일과 달리 파손 시에도 열차에 정지신호가 표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나, 코레일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.
    - \* 일반레일은 절단 시 열차안전을 위한 궤도회로를 통해 후속열차에 정지신호가 통보되나, 분기레일은 선로 전환 시 이동하여야 하므로 궤도회로 구성에서 제외됨
-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모든 선로 분기부에 대해 즉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, 열차운행이 빈번하거나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의 취약개소는 추가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,
  - 선로 분기부의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고, 열차 운행이 빈번한 곳 등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분기부는 취약개소로 지정하여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선로 분기부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- 한편, 오늘 밤 사우디 수주지원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원희룡 장관은 현지에서 위 내용을 보고받은 후 “어떠한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 을 강력 주문하였다.